

### FTA, 위기를 기회로

지난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올해 3월 한-미 FTA가 발효됐다. 중소기업에게는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FTA 준비 실태와 대응 전략을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광주·전남 AEO 인증 6개사 불과

(수출입안전)

## 썩 수출기업 준비 실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시간·비용 들어 교육시켜 줘더니 다른 회사로 가버리더라” 한-EU, 한-미 FTA 발효로 해외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지만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FTA를 대비한 AEO(수출입안인증) 등 인증 취득도 미흡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이하 호남본부)가 최근 광주지역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FTA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FTA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원산지 증명과 증빙의 어려움, 실무 경험 및 교육 부족 등을 호소했다. <AEO인증 광주·전남 고작 6곳> = 신속통관의 보증수표인 ‘AEO’는 전국 225개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은 고작 6개사가 취득했다. AEO는 각 나라의 세관당국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물품검사 생략·축소 등의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 통관시간 단축, 기업이미지 제고 등 간접 효과도 크다.



중소기업 수출 담당자들이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한-EU, 한-미 FTA 발효로 광주·전남 기업들도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전체 71개 대상기업 가운데 46곳, 전남은 42곳 가운데 24개 기업만이 지정돼 각각 64.8%, 57.1%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4745개 기업이 지정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인증하는 증명서로, EU에 6000유로(약 900만원)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이를 받아야 FTA 혜택관세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 박주순 의원(광주 동구)은 “한-EU FTA로 인한 혜택관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FTA가 체결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60%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관리>는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관세 혜택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이 필수다.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방식이 복잡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밝히면 나중에 미국 세관당국이 위반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FTA 체결국을 상대로 연간 5000건의 원산지 세부조사 실시하고 있다. 만약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벌금 폭탄을 부과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2001년 포드자동차는 원산지가 멕시코산임을 입증하지 못해 미국 관

세청으로부터 410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처럼 FTA 대비의 핵심은 ‘원산지 관리’다. 자동차의 경우 수만개의 부품이 조립돼 완성차를 만든다. 이들 부품의 원산지가 모두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사들은 원산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납품 자체가 어려워진다. 대기업이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재와 생산제품의 구매처·단가 기업 정보 노출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협력사의 경우 인력 구조상 검증을 하는 데다 낮은 이익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구매처와 단가 등 기업 정보의 노출을 우려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사례도 있다. 광주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품목·부품별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할 일도 많은데 경영으로 인해 관리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특성상 낮은 이익으로 업무 공백도 심하다”면서 “특히 미국은 한국을 원산지 세탁 고위험국가로 분류해 관리 중언미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스티커에 스마트폰 대면 고객센터 연결 기아차 ‘터치 콜 서비스’ 시작

기아차가 무선 근거리 통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정비 상담 서비스인 ‘터치 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무선 근거리 통신(NFC)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차량 내부에 부착하고 ‘기아 스마트 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된다.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기아차 스마트 큐

서비스 전담 센터(080-331-8585)나 기아차 고객센터(080-200-2000)에 연결돼 정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 고객센터와 연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NFC칩만 무선 통신 방식으로 차량 정비 전문가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방문·영상 진

단과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서비스 등 맞춤형 정비 솔루션을 제공 받게 된다. 기아차 고객은 가까운 전국 830여개의 서비스 네트워크인 오토 큐에서 NFC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8일부터 스마트폰 영상 통화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비(UVO)와 연계한 ‘스마트 원격진단 서비스’도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4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여가구...4개월 감소

4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1385가구로 전달(6만2249가구)보다 1564가구가 줄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감소했다. 규모별로 85㎡ 초과 중대형은 3만4267가구로 전달보다 1307가구 줄었고 85㎡ 이하도 2만7118호로 전달보다 257호가 줄었다. 준공용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형뉴스

## SINCE 1988

#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담평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기초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결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강남산업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